

# 간호학생의 인체해부관찰경험

김미희<sup>1</sup> · 채명정<sup>2</sup>

<sup>1</sup>기독교간호대학교 부교수, <sup>2</sup>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Study of Student Nurses' Observation Experiences of Human Body Dissection

Mi Hee Kim<sup>1</sup>, Myeong Jeong Chae<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Gwangju;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as observers of human body dissection. **Methods:** The research was undertaken as qualitative research.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written sources of 169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The analysis of data was made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1978). **Results:** In this study, five categories of themes emerged. They were: 'unfamiliar wait', 'standing at the edge of chaos', 'growth through reflection', 'be immersed in practice', 'winging to be a nurse'. **Conclusion:** This study will prove helpful not only in understanding nursing students' observation experiences of human body dissection but also in describing their needs for systematic and emotional support.

**Key Words:** *Students; Learning; Human body; Dissection; Qualitative research*

국문주요어: 간호학생, 학습, 인체, 해부, 질적연구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추고 있도록 요구된다. 근무부서별 혹은 전 분야 공통으로 필요한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은 차이가 있겠지만, 간호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간호 현장에서 기본 지식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간호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Choe et al., 1999).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학문인 해부학의 경우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론교육과 시신(cadaver)을 대상으로 한 실습교육이 필수적이며, 카테바 실습을 포기하거나 다른 형태로 대체 하던 해부 실습의 경우도 카테바 실습으로 회귀할 필요성이 보고되고 있다 (McLachlan, Bligh, Bradley, & Searle, 2004; Rizzolo & Stewart, 2006).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므로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해부학은 간호대학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기초 전공학문으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대학이 실습장소의 부족과 해부실습의 접근성이 어려워 카테바 실습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실시되더라도 횡수와 시간이 효과적 학습이 되는데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Sim, 2009). 그래서 최근 일부 간호대학은 국내·외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과 연계하여 인체 전체 계통별 실제 해부를 관찰하고, 부분적으로 해부를 해보는 형태로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의학 교과과정에서 해부학 실습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해부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전문직업의식과 같은 인지적 차원과, 휴머니티와 죽음,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관련된 정의적 차원, 그리고 장기기증과 같은 생명윤리적 차원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Hafferty, 1991; Lempp, 2005; Saylam & Coskunol, 2005; Shapiro et al., 2006). 카테바는 불편한 신체적 증상과 정서의 경험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잠재적인 스트레스 자극이 된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Corresponding author:

Myeong Jeong Ch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Yeodai-gil, Gwangsan-gu, Gwangju 506-713, Korea  
Tel: +82-62-950-3726 Fax: +82-62-950-3962 E-mail: woundcare92@gmail.com

투고일: 2012년 5월 14일 심사완료일: 2012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일

경우 해부 경험 혹은 해부에 대한 관념만으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준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Dinsmore, Daugherty, & Zeitz, 2001; Finkelstein & Mathers, 1990).

이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거쳐야 할 절차로서 해부학 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테바해부의 교육적 의미와 영향력을 조망하고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경험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체 해부실습에 대해 피교육자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으며 이러한 해부학 경험을 통해 의사되기를 배운다고 보고하고 있다(Arora & Sharma, 2011; Cahill & Ettarh, 2009; Choi, Kim, Seo, & Sohn, 2009; Dinsmor et al., 2001; Houwink et al., 2004; Lempp, 2005; O'Carroll, Whiten, Jackson, & Sinclair, 2002; Shapiro et al., 2006; Tschernig, Schlaud, & Pabst, 2000).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처럼 해부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해부 실습에 처음으로 노출된 간호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인체해부관찰 경험을 통해 부여하는 의미 즉, 경험 속에서 형성된 사고와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고 탐색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인체해부관찰 경험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간호학생의 경험에 바탕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인지, 정의, 생명윤리를 포괄하는 해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체해부관찰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이 겪은 경험에 대하여 서술한 기록을 근거로 인체해부관찰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부학실습교육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G시 소재 기독교 배경의 일 간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확대해석함에 있어 신중함을 요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인체해부관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참여자가 서술하여 기록한 서면화된 내용을 분석하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현상학적연구이다.

### 2. 연구 참여자 및 참여자 보호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의 간호대학교 학생으로 해부학 과목을

수강하고 C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3일간 이루어진 인체 계통 전체의 해부실습에 참여한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윤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 각자에게 서면화된 사전동의를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고, 연구결과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 내용은 절대 비밀 보장된다는 것과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 3. 자료 수집

“자신이 처음 본 인체해부관찰을 통해 어떤 것들을 경험하였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 즉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 그리고 반응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3일 동안의 관찰실습 당일 저녁에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편안한 장소에서 A4용지에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서면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2차에 걸쳐 각 3일간의 실습시에 성찰의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1인당 기록회수는 3회였고, 평균 서술시간은 회당 약 1시간이었으며, 참여자당 평균 A4용지 3매를 제출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모두 3년 이상의 해부학 교육 경험이 있고, 질적간호연구방법론 수강과 워크숍 참석 후 질적 연구논문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1인과 한국질적연구학회 가입 후 지속적인 워크숍에 참석한 1인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서면화된 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접근의 자료 분석 방법 중에서 Colaizzi (197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 (1978)가 강조한 4가지의 자료수집 방법 중 첫 번째인 서면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1단계

참여자들의 기술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반복해서 읽었다.

#### 2) 2단계

간호학생의 인체해부관찰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었다.

#### 3) 3단계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형성된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형성된 의미

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의 다양한 문장과 줄 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묘사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형성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원 자료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되도록 대상자가 표현한 진술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4) 4단계

형성된 의미를 조직하는 단계로 모든 참여자들의 프로토콜에서 공통된 주제를 뽑아내었다. 원 자료와의 일치 또는 모순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며 확인하고 주제 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원 자료로 돌아가서 살펴보았으며, 원 자료에 나온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

5) 5단계

모든 주제, 주제 모음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위하여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완전하게 서술하였다.

6) 6단계

가능한 한 기본적인 구조에서 명확한 문장을 규명하여 조사한 현상에 대한 기술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7) 7단계

다시 각각의 주제로 돌아가서 참여자의 입장을 돌아가 보고, 10명의 참여자에게 분석과정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기본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

인함에 있어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네 가지 논점 즉 사실적 가치, 적용성, 중립성, 일관성에 근거하였다.

연구 결과

Colaizzi (1978)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통해 원 자료(protocols)로부터 도출된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은 125개이었고, 이 의미있는 진술을 통해 형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s)는 43개이었다. 이를 토대로 원자료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13개의 주제(themes)를 정하였고, 주제 가운데 통합할 수 있는 것끼리 모아 5개의 주제모음(cluster of themes)을 도출하였다. 주제와 주제모음은 Table 1과 같다. 또한 간호학생의 인체해부관찰 경험의 기본구조를 도식화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참여자들은 통과리체처럼 다가온 인체해부관찰이라는 첫 경험을 앞둔 낯선 기다림의 여정에서 만난 카테바와 해부과정으로 인해 혼돈의 가장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 경계에서 파생된 근본적이고 심오한 성찰을 통한 성장이라는 톱니바퀴와 수련에 녹아들어가는 톱니바퀴가 양 축을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서 질서를 찾게 되고 어느덧 예비 간호사로서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하게 되었다.

1. 낯선 기다림

인체해부관찰 실습을 하게 된 간호학생들은 가야할 막연한 여정에 대한 고민과 다짐을 했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한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길썩의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as Observer of Human Body Dissection

Cluster of themes	Themes
Unfamiliar wait	A vague journey to be walked through The feeling of ambivalence at the roadside
Standing at the edge of chaos	Getting into a suffocated panic Being collapsed of one's body and mind Adjusting balances with having endurance
Growth through reflection	Cherishing the memory of cadaver A fundamental question and rumination My valuable body and life Pondering what sharing is
Be immersed in practice	Making an endeavor to be melt into what has to be done Becoming familiar with the practice
Winging to be a nurse	Deep emotion passing through the gate A flight having a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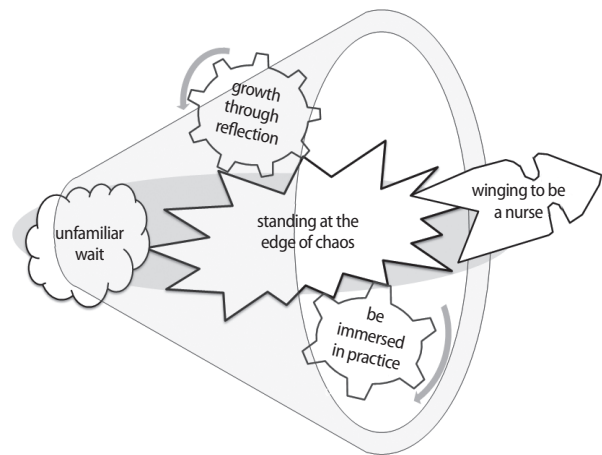


Figure 1. The structure of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as observer of human body dissection.

### 1) 가야할 막연한 여정

참여자들은 실습이 막연하기만 하였고 어떻게 할지 잘 몰랐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던 해부관련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미리 해부동영상을 보면서 갈피를 잡아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하였다. 또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라면 잘해보리라 다짐하면서 첫 해부관찰실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고 메디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보던 장면들이 생각났다.”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첫걸음이니 기증자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실습을 해내리라 각오를 했다.”

### 2) 길설의 양가감정

이론으로만 배웠던 인체에 대해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회라 여겼고 특별한 경험에 대한 호기심, 설렘과 기대가 있으면서도 카테바를 떠올리면 두렵고 떨리며 긴장이 되었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불안해했고 온갖 걱정이 더해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섞이고 교차함을 알 수 있었다.

“인체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흔치않고 색다른 경험이라는 생각에 들뜨고 기대 되었지만,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잘 할 수 있을지 두렵고 긴장되어 걱정하였다.” “포르말린냄새... 음습한 공간... 무서운 분위기... 실습을 하다 기절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기에 내가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냄새 때문에 구역질을 하지는 않을까... 우황청심환이라도 먹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 2. 혼돈의 가장자리에 섬

카테바와 마주하는 순간 숨을 들이킬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몸과 마음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감내해가기를 시도하였고 혼돈 속에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하였다고 표현하였다.

### 1) 숨을 들이킬 수 없는 패닉 상태

참여자들은 막상 실습실에서 카테바와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경이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격렬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카테바가 모형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놀라웠고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으며 다가가기를 꺼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을 회상하거나 투영시키기도 했으며 혼란스러워 하였다.

“막상 카테바를 눈앞에 두니 놀라웠다. 갑자기 몸이 떨리고 힘이 쭉 빠지고 겁이 났다.” “카테바 얼굴을 가려 답답해보였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차갑고 딱딱한 카테바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할 말을 잃은 동시에 뒷걸음을 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을 처음보고 느끼며 기분이 정말 묘했다. 이분이 내 가족이라면, 내 부모님이라면? 하는 생각에 울컥하였다.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 아내이자 친구였겠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웠고 힘들고 마음이 아팠다.”

### 2) 무너지는 몸과 마음

해부가 시작되면서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신체의 반응이 나타났고 마음이 흔들리고 들쭉여 힘들어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과 하루의 해부과정이 끝난 후에도 잔향과 잔상이 코끝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표현하였다.

“처음 절개장면을 보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피가 보이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텅 비고... 얼굴이 굳어졌다. 조금 섬뜩한 느낌도 들고... 손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오랫동안 서있지 못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머리도 아팠다.” “꺼림칙했고 소름이 끼쳤고... 등이나 후두쪽 피부를 잘랐을 때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몹시 힘들어서 속이 메스껍고 약간 어지러웠다.” “해부학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속소로 돌아와 눈을 감았을 때 해부 전 과정이 자꾸 생각나 조금은 정신적으로 괴롭기도 했다.” “밥 먹을 때도 잔상이 계속 남아 있어서 힘들었다.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났다. 카테바해부 당시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아 잊혀지지 않아 힘들었다.”

### 3) 감내하며 균형 맞추기

참여자들은 합리화나 의도적으로 둔해지기, 인식의 전환, 마음 추스르기, 친구와 함께 고민하기, 입으로 숨을 쉬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환기를 해서 각자의 방법과 내면의 힘으로 한계를 감내해감을 알 수 있었다.

“속으로 ‘다른 친구들도 다 보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합리화시킨 다음 용기를 내었다. 동기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같은 어려움을 겪은 친구

와 얘기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어차피 내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인내하고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았다.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모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었다. 누군가를 위해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스크를 쓰고 입으로 숨을 쉬고 한번씩 바람을 쐬면서 버텼다”

### 3. 성찰을 통한 성장

시신기증자에 대해서는 추모의 감정을 느꼈고 근본적 질문과 깊은 반추의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몸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였고 나눔의 의미와 범위, 깊이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1) 시신기증자에 대한 추모

점차 카테바에 눈길이 향하고 멈추면서 기증자와 기증자의 삶에 대해 추모하고 미안한 마음을 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테바기증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삶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증자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기증자가 대단하다고 느꼈으며 한없이 감사하면서 숙연해짐을 알 수 있었다.

“과연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신체를 기증해 주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으며 지금은 편히 계시길 바랐다.” “카테바기증자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기증을 하시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였다. 욕창이 여러 군데 있는 카테바는 지방도 거의 없어서 생전에 얼마나 아프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 2) 근본적 질문과 반추

어느덧 이전에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과 죽음을 반추하면서 신과 종교, 가족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생허상,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 신의 위대함, 종교의 의미와 가치 등을 끝없이 생각하고 되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 죽음에 대해 허탈하기도 했으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한층 더 성숙해진 기분이 들었다.” “내 삶과 주변사람들까지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 친구 등 모든 사람들의 삶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

고 조금 더 주위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종교에 관심이 가고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3) 소중한 나의 몸과 삶

자신의 몸에 대한 신비와 소중함을 새삼 절감하였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신체를 소중하게 아끼고 다루면서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살기로 마음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체해부를 보면서 신기했고 인간은 정말 대단하거나 생각했다. 인체가 정말 쓸모없는 것 없이 하나하나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섬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생명은 소중하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야지 라고 생각했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심도 있게 생각하게 되었고 한번밖에 오지 않을 시간들,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릴 내일을 죽기 전까지 뜻 깊게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4) 나눔에 대한 고민

한편 몸의 기증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숙고해보며 용기를 내보거나 주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만의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누군가가 장기기증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나도 장기기증쯤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몸을 기증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기기증과 달리 카테바 기증은 나의 몸 전부를 누군가에게 내보이는 것이기에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증할 생각이 없어졌다.” “죽은 이후에 흠으로 돌아가게 될 몸을 선택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웠다.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던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실천으로 옮겨야겠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몸의 기증은 못할망정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4. 수련에 빠져들

간호학생들은 전문인으로서의 위치와 실습의 의미를 생각하면

서 실습에 녹아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거듭해가면서 상대적으로 잔상과 여운이 줄어들었으며 감정처리가 점차 나아져 실습이 편해졌다고 표현하였다.

#### 1) 녹아들기 위한 노력

여러 생각이 고리를 물지만 이를 뒤로하고 현재 이곳에 자신이 있는 이유와 기증자의 송고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신을 차려갔으며 자타의 기대치를 되뇌면서 실습에 집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할 당위성을 생각했다. 기증자가 공부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러한 실습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인 만큼 책임이 느껴졌다. 자신의 몸을 기증해주신 분의 참 뜻을 생각하며 마음을 바로잡고 집중하여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얻어가려고 노력하였다.”

#### 2) 상대적으로 익숙해짐

어느덧 카테바를 자주 대하고 해부관찰을 거듭해감에 따라 조금씩 잔상과 잔향, 여운이 줄어들었고, 감정처리가 나아지면서 실습이 점차 편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여러 번 보다 보니 처음 카테바를 접했을 때 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다. 거부감이 점차 줄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뎠던 해졌다. 땀은 났지만 조금 지나니 익숙해져 괜찮았다. 더 이상 울렁거리지 않았고 도리어 호기심이 났다.”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다가가서 보다보니 어느새 가까이에서 만져볼 수도 있게 되었다. 처음의 두려움이 열정으로 승화되었다.”

### 5. 간호사로의 날갯짓

참여자들은 전문적, 실용적 삶에 대한 기쁨과 결국 자신이 과정을 통해 뭔가 해냈다는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간호학도로서 자화상을 내재화하면서 선택한 간호사의 길을 비전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1) 해냈다는 벅차오름

해부관찰이 끝나면서 참여자들은 실습하기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자신이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 안도감과 더불어 남다른 경험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다. 가슴과 머리와 닿았다. 그 동안의 의문점과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해부학의 기초를 더 단단히 한 것 같아서 좋았고, 내가 점점 더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안도감이 들었고 끝난 후에도 약간의 흥분과 떨림은 남아있었다. 간호학도로서 전체 해부를 관찰해보아서 좋았고 자부심을 느꼈다.”

#### 2) 비전으로 비상하기

나아가서 본인이 전공하는 간호학문을 조금은 맛보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간호학도로서 자화상을 찾아가면서 학업에 대한 열의를 다지고 있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깊어졌고 이번 기회에 배운 바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선택한 길, 간호사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여 기증자의 뜻에 보답하기로 다짐하고 있었다.

“간호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야도 넓어지고 참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느꼈다. 내가 간호학도가 되었구나 초입에 들어섰구나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잘 알아야하고 굉장히 노력해야겠다고 깨달았다.” “그저 간호사 되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누군가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생각하며 어떤 일에도 겸손한 자세로 모든 면에서 끝없이 노력하고 전진하는 멋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증자를 통해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임상에서 만나게 될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확실한 간호를 함으로써 보답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인체해부관찰 경험에 대한 통합된 구조적 진술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첫 해부학 실습의 막연함 속에서 해부와 관련된 대중매체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정도이지만 갈피를 잡아보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준비하고 있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며 기대하면서도 카테바를 떠올리면 자꾸 두렵고 긴장이 되었다. 과연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다른 걱정이 더해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섞이고 교차하였다. 참여자들은 막상 실습실에서 처음 카테바와 마주하면서 경이감,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으며 격렬한 충격으로 한 발짝 물러서게 되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을 회상하거나 투영시키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였다. 해부의 시작과

동시에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신체의 반응이 나타났고 마음이 격동하였으며, 해부과정이 끝난 후에도 맴도는 잔향과 잔상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합리하나 의도적인 둔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과 내면의 힘으로 각자 한계를 감내해가게 되었다. 카테바에 시선과 생각이 머물게 되면서는 기증자를 추모하였고 한없이 감사하면서 숙연해졌다. 그리고 삶과 죽음, 신과 종교, 주변인에 대해 곱씹어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신체의 신비와 소중함을 새삼 절감하며, 지금 이 순간 존재함에 감사하면서 가치 있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하는 한편 장기와 카테바 기증에 대해 고민하였다. 점차 참여자들은 자타의 기대와 기증자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실습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해부관찰을 거듭해가면서 잔상과 잔향, 감정처리가 나아지고 실습이 점차 편해지기 시작하였다. 과정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참여자들은 삶의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고, 해냈다는 성취감과 안도감 그리고 남다른 경험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간호학도로서 자화상을 찾아가며, 간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사명감을 내재화해가고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이 경험한 인체해부관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체해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있어 해부학 실습은 막연한 스트레스와 우려로 연결되는 한편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해부학실습 경험에 대해 언급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Dickinson, Lancaster, Winfield, Reece, & Colthorpe, 1997)와 흥미감(McGarvey, Farrell, Conroy, Kandiah, & Monkhouse, 2001)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경험한다는(Shapiro et al., 2006)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선배들로부터 진심어린 충고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실습을 준비한다는 보고와도 유사하였다(Choi et al., 2009). 그러므로 해부학 실습 전에 카테바 기증자나 가족에게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과 같은 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카테바를 육안으로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다양한 신체증상과 마음의 동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막연하게만 상상했던 과정이 현실화되어 신체적,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의과대학 학생들의 경험과 유사하였다. 즉 의과대학 학생에게 있어 해부학 실습은 세밀하고 강렬한 경험이며(Choi et al., 2009), 오심, 구토 및 냄새로 인한

불편감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는(Cahill & Ettarh, 2009)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의과대학 학생들은 걱정 및 불안, 죄책감 외에도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으나(Shapiro et al., 2006), 직접 접도하지 않고 인체해부관찰만을 한 간호학생의 경우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거의 표현하지 않아 경험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참여자들이 정신적·신체적 동요를 감내하기 위해 타의에 의해서나 자의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면서 혼란과 질서간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낯선 전공실습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인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간호학생이 다양한 행동적 전략과 용기를 내고 각오를 다지는 등의 정서 중심적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Moon, 1998). 의과대학 학생의 경우에도 해부학 실습시 느끼는 감정의 억압과 분리, 카테바를 단순히 학습을 위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 간다는 연구(Shapiro et al., 2006)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이후 참여자들은 점차 성찰을 통해 성장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삶과 죽음 및 종교에 대한 생각과 같은 평소 의문시 하지 않던 내면의 깊이를 조율해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Shapiro 등(2006)의 연구에서 신의 작품인 신체를 통해 신과 영성 및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Lempp (2005)는 해부학 실습을 통해 신체에 대한 존엄성과 미래에 자신이 접하게 되는 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부학 실습 전과 후에 자신에 대한 성찰과 죽음 및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Marks, Bertman, & Penney, 1997). 이러한 계기는 향후 임상에서 생명의료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을 극복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이 신체의 신비와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점은 의대생들이 복합적인 신체에 대한 경이감과 아름다움, 신비감을 느낀다는 결과(Shapiro et al., 2006)와 유사하였다. 또한 카테바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이타적인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Choi 등(2009)의 연구에서도 해부학과정 중에 실습 전후로 치러지는 위령제나 추모제를 통해 이타적인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의료 전문직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환자의 이익을 위한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자세(Choi, 2009)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장기기증이나 카테바기증에 대해 숙고해 보면서 장기기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카테바기증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변화되었다. 이는 해부학 실습 후 카테바기증에 대해 약 80%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McGarvey 등(2001)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해부학 실습 교육 일정에 유사작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고, 장기기증 및 카테바 기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카테바 실습이 거듭됨에 따라 참여자들은 점차 몰입해 가면서 익숙해지게 되는데, 카테바를 접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적응력이 향상된다는(Arora & Sharma, 2011) 보고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인 동요를 견디어 간다는 Lempp (2005)의 보고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학생이 첫 임상실습기간 동안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차 익숙해지는 것(Moon, 1998)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부학 실습 중에 발생하는 감정 처리가 중요하므로(Tschernig et al., 2000), 학생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표현하도록 격려하고(Rizzolo, 2002), 실습 단계마다 글쓰기와 대화를 통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해부관찰 실습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전문인으로서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은 해부학 실습이 직업적인 전문성을 발전시키고(Swick, 2006),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과 유사하다(Choi et al., 2009). 또한 간호학 전공실습에 입문하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인 임상실습 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배운다는 느낌으로 겸손해지며, 자신과 간호학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성장을 경험한다는 보고(Sohn, Chung, Chung, Park, & Lee, 1997)와 간호인으로서의 방향설정, 소속감, 책임감, 성취감, 뿌듯함과 같은 간호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는 보고(Moon, 199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인체해부의 경험은 전문직 간호사에게 중요한 훈련과정이다. 비록 그 경험이 간접적이더라도 긴장과 동요를 겪는 상황 사건이지만 삶, 죽음 및 생명의 의미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신을 넘어 미래의 환자와의 관계를 숙고하고 재정립해가면서 미래의 간호사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처음 관찰한 '인체해부 관찰실습의 경험'이 무엇인지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G광역시 K간호대학교의 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인체해부를 관찰한 실습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낮선 기다림', '혼돈의 가장자리에 섬', '성

찰을 통한 성장', '수련에 빠져들', '간호사로의 날갯짓' 이다.

간호학생들은 처음으로 인체해부실습을 하게 됨에 따라 막연하나마 이미지를 그려보고 나름대로 다짐과 준비를 하는데, 양가감정 즉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부담과 긴장이 뒤섞여 혼란스럽다. 막상 카테바와 마주하게 되면 경이와 충격이 휩싸이게 되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마음의 들쭉이는 파동으로 힘들어 하지만, 각자의 방법과 내면의 힘으로 감내해가게 된다. 그리고 점차 기증자에 대한 추모와 감사, 삶과 죽음, 신과 종교, 그리고 주변인의 의미와 자신과의 관계를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몸의 신비와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며 가치롭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고 기증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실습이 거듭되면서 기증자의 뜻과 자타의 기대치를 되뇌며 실습에 집중하게 되고 조금씩 잔상과 감정 처리가 나아지게 된다. 결국 실습을 무사히 마친 후에는 알아가는 기쁨,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간호학도로서의 자화상을 찾아가며 간호사로서의 삶을 꿈꾼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생에게 중요한 지식과 태도 측면의 학습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 해부학 과목을 교육함에 있어서 인체해부관찰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간호학생이 성공적인 해부학 실습을 위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며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고 간호학도로서 가치와 자아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성찰과 같은 다차원적인 전략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제와 기본구조, 그리고 통합적 진술을 통해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해부실습과 연계되어 학습할 수 있는 생명윤리와 죽음 등의 주제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체험의 의미, 그리고 지각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질적 연구 분석방법을 통한 탐구나,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 그리고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을 통해 인체해부관찰경험을 분석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Arora, L., & Sharma, B. R. (2011). Assessment of role of dissection in anatomy te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graduate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Ibnosina Journal of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s*, 3(2), 59-65.
- Cahill, K. C., & Ettarh, R. R. (2009). Attitudes to anatomy dissection in an Irish medical school. *Clinical Anatomy*, 22, 386-391.
- Choe, M. A., Byun, Y. S., Seo, Y. S., Hwang, A. R., Kim, H. S., Hong, H. S., et al. (1999). A study on the degree of need of human structure and function knowledge in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1), 1-24.



- Choi, G. Y., Kim, J. M., Seo, J. H., & Sohn, H. J. (2009). Becoming a doctor through learning anatomy-nar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22, 213-224.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ckinson, G. E., Lancaster, C. J., Winfield, I. C., Reece, E. F., & Colthorpe, C. A. (1997). Detached concern and death anxiety of first year medical students: Before and after gross anatomy course. *Clinical Anatomy*, 10, 201-207.
- Dinsmore, C. E., Daugherty, S., & Zeitz, H. J. (2001). Student responses to the gross anatomy laboratory in a medical curriculum. *Clinical Anatomy*, 14, 231-236.
- Finkelstein, P., & Mathers, L. (1990). Post-traumatic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in the anatomy dissection laboratory. *Clinical Anatomy*, 3, 219-226.
- Guba, E., & Lincoln, Y.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 Hafferty, F. W. (1991). *Into the valley: Death and the socialization of medical stude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ouwink, A. P., Kurup, A. N., Kollars, J. P., Kral Kollars, C. A., Carmichael, S. W., & Pawlina, W. (2004). Help of third-year medical students decreases first-year medical students' negative psychological reactions on the first day of gross anatomy dissection. *Clinical Anatomy*, 17, 328-333.
- Lempp, H. K. (2005). Perceptions of dissection by students in one medical school: Beyond learning about anatomy. A qualitative study. *Medication Education*, 39, 318-325.
- Marks, S. C. Jr., Bertman, S. L., & Penney, J. C. (1997). Human anatomy: A foundation for education about death and dying in medicine. *Clinical Anatomy*, 10(2), 118-122.
- McGarvey, M. A., Farrell, T., Conroy, R. M., Kandiah, S., & Monkhouse, W. S. (2001). Dissection: A positive experiences. *Clinical Anatomy*, 14, 227-230.
- McLachlan, J. C., Bligh, J., Bradley, P., & Searle, J. (2004). Teaching anatomy without cadavers. *Medical Education*, 38, 418-424.
- Moon, M. S. (1998).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4(1), 15-27.
- O'Carroll, R. E., Whiten, S., Jackson, D., & Sinclair, D. W. (2002). Assessing the emotional impact of cadaver dissection on medical students. *Medical Education*, 36, 550-554.
- Rizzolo, L. J. (2002). Human dissection: An approach to interweaving the traditional and humanistic goals of medical education. *The Anatomical Record*, 269, 242-248.
- Rizzolo, L. J., & Stewart, W. B. (2006). Should we continue teaching anatomy by dissection when ...? *The Anatomical Record (Part B: The New Anatomist)*, 289, 215-218.
- Saylam, C., & Coskunol, H. (2005). Orientation lesson in anatomy education. *Surgical and Radiologic Anatomy*, 27(1), 74-77.
- Shapiro, J., Nguyen, V. P., Mourra, S., Ross, M., Thai, T., & Leonard, R. (2006). The use of creative projects in a gross anatomy class. *Journal for Learning through the Arts*, 2(1), Article 20.
- Sim, J. H. (2009). The learning effects of instructional media on anatomy classes in a nursing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1(1), 51-58.
- Sohn, S. K., Chung, B. Y., Chung, S. E., Park, J. M., & Lee, S. Y. (1997). A study of the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3, 59-77.
- Swick, H. M. (2006).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 clinical anatomist. *Clinical Anatomy*, 19, 393-402.
- Tschernig, T., Schlaud, M., & Pabst, R. (2000). Emotional reactions of medical students to dissecting human bodies: A conceptual approach and its evaluation. *The Anatomical Record*, 261, 11-13.